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⑥ 차와 물의 상관관계

물에 의해 차의 진수 드러난다

역사 이래로 차를 다루고 마시는 전반적인 행위가 인간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은 컸다. 이러한 사실은 차의 품성이 검박해 사람의 본성과 서로 닮았다고 인식했던 수행자나 문인들이 자신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신음료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차를 마시며 느꼈던 즐거움을 드러낸 글을 지어 차 문화의 토층을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론 이들이 차를 통해 자연의 원리를 터득하고자 했다. 그뿐 아니라 수행자나 도가, 문인은 차를 마시기 위한 다변화된 준비 과정이나 경험을 이론화해 수많은 기록물을 남겨놓음으로써 후대인의 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정표와 통로를 넓고 깊게 열었다. 이에 따라 오묘한 차의 세계로 진입하는데, 과도한 시간 낭비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곧바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으니 이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실익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차를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 다시 말해 옛사람들이 남긴 차에 관한 문헌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열정과 이를 토대로 차의 이로움을 실증해 나감으로써 삶의 여유와 안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물론 차는 이론적인 정보에 앞서 몸으로 익히는 실전이 더욱 중요한데, 이는 몸으로 터득한 차를 즐기는 묘미가 삶을 살찌게 만들기 때문이다.

옛날 차를 즐긴 이들은 차를 통해 사물을 관조할 뿐 아니라 자신의 문예적인 이상을 실현했다. 이처럼 차는 자연의 순리와 하나가 된 삶을 만끽할 정신음료였다. 그러기에 이들은 한 잔의 차를 얻기 위해 좋은 차를 선별하고 좋은 물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는 찻물에 대한 품평의 기준을 세운 육우에게서도 드러난다. 그가 중국 여러 지역의 물을 이십천(二十泉)으로 분류한 후, 그의 품천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물론 융성한 차 문화를 이룩했던 고려시대에도 찻물의 중요성을 인식한 수행승이나 문인들의 기록이 많았겠지만, 현존하는 자료는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품천의 기준을 가지고 품수(品水)한 것은 여말선초의 인물 이행(李行, 1352~1432)이다. 그는 충주의 달천수(達川水), 한강의 우중수(牛重水), 속리산의 삼타수(三陀水)를 좋은 찻물로 분류해 이 시대의 품천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그렇다면 차와 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초의 선사(1786~1866)의 〈동다송〉에 "차는 물의 신이요 물은 차의 체이다(茶者水之神 水者茶之體)"라고 한 것에서 나타난다. 바로 차는 물에 의해 차의 진수, 즉 색향기미(色香氣味)를 드러내기 때문에 물은 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신음료로써의 차는 정밀한 제다 및 장다의 조건, 불, 다구의 여건이 완비돼야 차의 효능을 다 드러낸다. 이런 차는 몸과 마음의 불평(不平)을 고르게 해 심신을 안정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좋은 차와 물은 선제적으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물론 좋은 차와 물을 얻었다고 해도 불을 잘 관리해 센 불과 약한 불을 고르게 활용해 물을 끓이지 않는다면, 차의 현묘한 세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차를 다리는 광경, 차와 물, 불과 사람의 정성이 만들어낸 차의 진수, 옛 문인들은 차를 즐기는 이로움을 만끽하였다.

초의 선사 "물은 차의 神" 강조
茶人들, 좋은 물 · 차 선별 노력
정밀한 여건 완비해야 효능 확인

그러기에 신라 말이나 고려시대처럼 가루차를 향유했던 시대에는 삼비(三沸)로 물을 끓여 차를 즐겼다. 하지만 잎차를 즐겼던 시대에는 물을 끓이는 법이 조금 변화해 오비(五沸)로 물을 끓여 차를 우려야 차의 진수가 드러났다. 가루차를 선호했던 시대에는 가루차를 다완에 넣고 끓인 물을 부은 후 격불해 거품을 내어 마시므로 막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즈음이 가장 차를 다루기 좋은 상태가 된다. 한편 초의 선사는 차와 물의 관계를 정의해 "좋은 물이 아니면 차의 신묘함이 드러나지 않고 좋은 차가 아니면 물의 근본을 엿볼 수 없다(非眞水 莫顯其神 非眞茶 莫窺其體)"고 했다.

그가 말한 진차(眞茶)와 진수(眞水)란 차와 물의 근원이 잘 드러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차의 격조는 맑고 시원하며 온화하고도 싱그러운 향과 감미(甘味)가 드러나야 하며 기운 생동한 차의 기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고금(古今)을 관통하는 차의 품격이며 가치이다.

이런 차를 즐기는 사람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명나라 황족 출신 주권(朱權)은 〈다보(茶譜)〉 서문에서 "차란 시흥(詩興)을 돋우며 깊은 산속에서 몸을 숨길 수 있게 하며, 잠을 쫓아내 천지 사이에서 자신의 형상을 잊게 할 수 있다(茶之為物, 可以助詩興而雲山頓色, 可以伏睡魔而天地忘形)"고 했다. 이어 "고상한 담론을 더욱 고조시키며 만상이 서늘함에 놀라니 차의 공덕이 위대하다(可以倍清談而萬象驚寒 茶之功 大矣)"고 말했다.

실제 차는 "대장을 이롭게 하고 쌓인 열을 제거하며 담을 삭이고, 기운을 내려 준다. 잠을 깨게 하고, 술을 깨게 하며 소화를 돕고, 번뇌와 기름기를 제거해 상쾌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준다(食之能利大腸, 去積熱, 化痰下氣, 醒睡, 解酒, 消食, 除煩去膩, 助興爽神)"고 했다. 그러므로 차는 불로장생의 묘수를 담은 오묘한 물질인 것이니 한가할 여유가 없는 삶에 노출된 현대인에게는 더욱 필요해진 음료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⑫

1. '아시타 선인'이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① 태자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을 것 같아서
② 오랜 세월 수행해 왔으나 자신은 깨닫지 못해서
③ 어머니인 마야왕비가 곧 돌아가시게 됨을 예감하여서
④ 태자가 출가한 후 카필라 국이 멸망할 것을 예감하여서
⑤ 부처님의 성도 후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워서

해설 : 아시타 선인은 신들에게서 전륜성왕 혹은 부처님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 태어난 태자가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 되시리라 확인한 후, 자신이 그 사람이 부처님이 되실 때까지 수명이 남아있지 않아 슬퍼하였다.

2 다음은 싯다르타 태자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아시타 선인의 예언 내용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른 것은?

"왕자님은 보통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훌륭한 상호를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왕자님은 훗날 성장하셔서 전 인도를 통일하여 덕으로써 다스리는 이상적인 제왕인 (㉠)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면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이 될 것입니다.

① ㉠ - 부처님 ㉡ - 보살님
② ㉠ - 부처님 ㉡ - 전륜성왕
③ ㉠ - 전륜성왕 ㉡ - 부처님
④ ㉠ - 보살님 ㉡ - 부처님
⑤ ㉠ - 대왕 ㉡ - 보살님

해설 : 이상적은 제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한다.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은 부처님이시다.

3.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부처님의 부모는 정반왕과 마야왕비이다.
② 석가모니란 석가족 출신의 성인이란 뜻이다.
③ 싯다르타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④ 어린 시절 싯다르타 태자를 양육시킨 사람은 이모였다.
⑤ 싯다르타 태자는 이웃나라의 야소다라 공주를 사랑하였으나 끝내 결혼은 하지 않았다.

해설 : 싯다르타 태자는 출가하기 전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하여 라훌라라는 아들을 낳았다.

4. [보기] 중 부처님의 생애로 틀린 것은?

[보기]
㉠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이며, 어머니는 마야부인이다.
㉡ 부처님의 출가 이전의 이름은 싯달타(Siddhartha)이며, '모든 것의 장애'라는 뜻이다.
㉢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지혜제일은 목련 존자이며, 신통제일은 사리불 존자이다.
㉣ 불교 최초의 절 죽림정사는 빔비사라왕이 부처님께 자신의 벨루바나 동산을 기증한데서 비롯되었다.
㉤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 29세에 출가 수행하여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80세에 생을 마감하셨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 싯달타는 '모든 것의 성취'라는 뜻이며,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사리불은 신통제일의 제자이다.

5. 다음 중'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부처님 탄생게의 의미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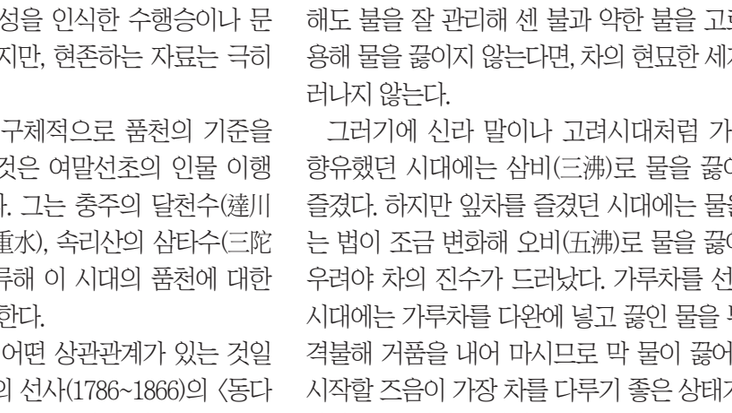
① 나 자신만이 제일이라는 독불장군식 의미이다.
② 부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러 왔다는 의미이다.
③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신의 자리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④ 나는 물론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인간 자존성의 천명이다.
⑤ 나 자신만이 세상의 고통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유일신적 표현이다.

해설 : 인간 모두가 최고의 존재인 부처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부처님께서는 본인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다. 그렇기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하다는 말이다.

정답 : 1. ⑤ 2. ③ 3. ⑤ 4. ③ 5. ④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